

주어서 행복하고, 받음으로 희망이 되는 복지

3월 23일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장을 가득 메운 400여 명 중에는 유공자로 선정된 수상자도 있을 테고, 결핵환자, 가족, 혹은 관계자들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결핵예방의 날’을 제정하게 된 출발이 되었던 “세계 결핵의 날”은 대한결핵협회와 WHO, IUATLD와 맥을 같이하는데, 1회 때부터 결핵퇴치에 공로가 많은 이들을 선정해 시상해 온 복지자대상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올해 결핵예방의 날, 제24회를 맞이하는 복지자대상 수상자에는 박호국 부산광역시청 복지건강국장이 선정되었다.

박호국 국장은 부산광역시 복지와 건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특히 시의 결핵문제에 관심이 많아 여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호국 국장을 만나 수상소감과 함께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부임 후 부산시 보건소 PACS 시스템 완료

수상소감에 대해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상을 주시니, 앞으로 결핵 업무를 더 잘하라는 말 같다”는 박호국 국장은, 사실 누구보다도 결핵 문제에 관심이 많다. 박 국장은 부임해 오자마자, 부산시 전 보건소에 PACS시스템(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병원이 없어지면 진료기록부, 직

찰 필름 등을 보건소에 보관하는데, 그 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건소 창고 가면 몇 차는 될 겁니다. 또 부산에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필름을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은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설명한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비싼 필름 값이며 보관 문제 등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박 국장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16개 보건소 전체에 팩스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마산병원 결핵환자 입원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 구비를 손쉽게 할 수 있어 업무가 무척 편리해졌다고 담당자는 설명한다. 박 국장은 과장 시절 팩스 사업의 시작과 인터페론 감마검사, 중2,3학년 엑스선 검진 등 주요 결핵 정책을 추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복지건강국장으로 부임한 다음날 바로 노숙자 쉼터를 찾아 겨울 한파 대비책을 살폈다는 박 국장의 면모와 겹쳐지는 부분이다.

우리협회 남부지회와 협력해 홍보행사를 비롯해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결핵사업에 대한 열정은 익히 들어온 터다. 그러나 “부산시에 다양한 복지건강국 업무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공을 낮추면서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결핵 통계에서처럼 “부산이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는 상황만큼은 벗어나고 싶다며 웃는다.



부산광역시

박호국

복지건강국장





제2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박호국 국장이 우리협회 문영목 회장으로부터 복십자 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공직생활의 대부분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

박호국 국장은 “공직생활의 거의 전부를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복지업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복지건강국 국장으로서 1년이 조금 넘었지만, 1979년 밀양군보건소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보건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1989년 부산시 북구청 위생과 근무를 거쳐,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관련 보직을 두루 거친 후 2009년부터 복지건강국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는 부산시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2012년 부산시 복지건강국 1년 예산만도 2조 3천2백억 원. 시 예산의 29.1%를 차지하는 규모다. 장의 역할이 막중한 자리인 만큼 책임감도 크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세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능기부'를
 박호국 국장 주도하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아닌 맘으로 돕는 만큼 보람도
 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
 활동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에 기반한 복지정책

부산시 보건복지 정책의 큰 틀은 저소득시민과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복지제공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 올해는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시민에 대한 특별 지원에 많은 예산이 할애됐다.

단순히 지원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탈빈곤 희망키움통장' 지원, 기사간병 방문서비스 및 자활지원에도 애쓰고 있다. 더불어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환경개선, 노인일자리 지원 등도 부산시 복지건강국이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몸으로 봉사하며 '행복 바이러스' 퍼뜨려

말고 있는 업무만으로 하루를 분초 단위로 나눠 써야 할 만큼 바쁘지만, 박호국 국장이 특히 애정을 쏟고 있는 일이 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봉사 조직을 만들어 월 1회 벌이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의료지원반, 이·미용지원반, 가옥 개·보수반, 급식지원반 등 네 개 팀이 한 달에 한 번 활동하는데, 의료지원은 보건소장, 그린닥터스, 의사회 회원 등이 참여하고, 미용 기술학원 소속 원생, 도배, 장판 전기 기능요원과 복지건강국 직원까지 다양한 이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호국 국장은 직접 이미용사 자격증을 따 행복 바이러스에서 이발사로도 활약하고 있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근 이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세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직접 봉사활동을 나서는 박 국장 덕에 '행복 바이러스'가 부산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지난 결핵예방의 날 복지대상으로 수여된 상금 100만원도 해피바이러스를 통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두 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복지대상자의 가치가 박호국 국장을 통해 두 배, 세 배로 증폭된 듯하다. †

